



보도 일시	2022. 9. 29.(목) 18:00	배포 일시	2022. 9. 29.(목) 17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개발금융국	책임자	과 장 이상규 (044-215-8720)
	국제기구과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
추경호 부총리, 아시아개발은행(ADB) 총재 및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

“2023년 ADB 연차총회 개최 및 국내 거점 신설을 위한 협력 당부”
“한국-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기본약정 30억불 증액 합의
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”

-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*에 참석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.28(수), ADB 총재 및 필리핀 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실시하였다.

* 9.26(월)~9.30일(금), 필리핀 마닐라 (대면·영상 혼합방식)

[ADB 총재 면담]

- 우선, 추 부총리는 9.28일(수)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을 갖고, 한국-ADB 간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ADB 총재는 한국의 e-Asia 지식협력기금*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 확대('21년 26만불),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를 통한 한국-ADB 협조융자 활성화 등 다양한 재원적 측면 협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,

* 아시아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, 지식 공유 지원을 통해 빈곤 감축 및 경제·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ADB 내 한국 단독 신탁기금

- 향후 기후변화 대응, 역내 국제조세 협력 등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협력도 활발히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
- 우선, 추 부총리는 2023년(5.2.~5일)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ADB 연차 총회가 코로나19 이후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첫 연차총회인 만큼 역내 경제 재도약과 회원국간 화합의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총회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.
 - 또한, 한국의 팬데믹 극복 및 경제회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내년 총회가 한국과 ADB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이어, 추 부총리는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기후 금융 지원 목표를 800억불에서 1,000억불로 확대한 ADB의 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하며, 내년 인천 연차총회를 계기로 ADB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추 부총리는 ADB가 기후은행(climate bank)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전기차 등 한국의 우수한 녹색기술과 ②녹색기후기금(GCF),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 등 국내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,
 - 이를 위해 한국 내 ADB 기후혁신기술센터(가칭) 신설을 제안하고 총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.
 - ADB 총재는 ADB 지역 거점 신설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,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적으로 논의하자고 화답하였다.
- 한편, 추 부총리는 한국이 차별화된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(World Expo) 유치를 위한 최적 후보지임을 강조하며, 아·태 지역에서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ADB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.

[필리핀 재무장관 면담]

- 추 부총리와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9.28(수)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자면담을 갖고, 한-필리핀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기본약정* 합의문에 서명하였다.

*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, 기간·한도 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

-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은 2022~2026년 기간 미화 30억불로 증액될 예정이다.
 - 필리핀 정부는 기존 EDCF 기본약정('17.~'22., 10억 불) 한도가 연내 소진 예상되어 지원 한도 증액을 요청하였고,
 - 기획재정부는 양국 간 그린, 디지털, 보건·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, 필리핀이 EDCF 중점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관 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.
 - 기획재정부는 동 합의문을 계기로 대규모 인프라, 그린·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개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 - 또한, 동 면담 계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(World Expo) 유치와 관련한 필리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.
 - 추 부총리는 부산 세계박람회가 제시한 주제*의 시의적절성과 함께, 부산의 인프라, 관광·문화 콘텐츠, 다수 국제행사 개최 경험 등을 소개하며 부산이 주제 구현을 위한 최적 개최지임을 설명하였다.
- * 세계의 대전환,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
-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제회의·양자면담 등 계기를 활용하여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 이상규 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angseckchoi@korea.kr)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	책임자	과 장 정광조 (044-215-8770)
		담당자	사무관 김지영 (jykim0228@korea.kr)